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2월 24일(목)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산업진흥과	담당 자 • 벤처·소부장팀장 조동주 ☎440-4296 • 담당자 김영준 ☎440-429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시간확인)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본격 시동 건다

- 24일, ‘인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공포 -

- 반도체산업 지속성장 및 체계적 생태계 조성 기대 -

- 인천 전체 수출품목 1위 반도체, 지난해 역대 최대 122억 달러 기록 -

인천시의 반도체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24일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의회 김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지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로써 인천시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반도체는 인천 전체 수출의 약 27%를 차지하는 1위 효자 수출품목이다. 지난해에는 122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인천에는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분야 세계 2위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3위인 스테츠칩팩코리아 및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한미반도체를 비롯해 1,20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만과 공항 등 인프라와 수출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성장 기회가 충분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인천 반도체 포럼’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천 특화형 반도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정부공모사업 추진, 반도체 관련 산·학·연과 연계한 정책과제 발굴 지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천 반도체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반도체는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정책을 추진해 반도체산업을 인천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수출 성과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관련사진(21.12.9. 반도체 포럼 출범식)

사진

2021. 12. 9. 반도체 포럼 출범식

